

# 마이데이터로 디지털 경쟁력 제고... 자녀 보장성 보험 강화

## 2023 보험사 경영전략

### KB손해보험

성과창출·전문성 방점 인사 단행  
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경쟁력 ↑  
아워홈 등과 헬스케어 진출 속도  
금쪽같은 자녀보험 등 혜택 확대

“지난 2년간 KB손해보험은 강력한 본업 강화 및 사상 최대 이익을 시현했으며 비즈니스 영역 확장(헬스케어, 마이데이터)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공정한 조직문화 확보라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은 취임 3년차에 들어선 새해 시무식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사장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KB손해보험은 마이데이터·헬스케어 등 새먹거리 창출에 매진하고 디지털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는 디지털 활용 방안에 주력할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성과창출’ 및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둔 인사를 단행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했다. ▲개인마케팅본부 ▲GA마케팅본부 ▲일반마케팅본부 ▲CPC디지털부문을 신설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인보험과 일반보험 개발부를 통합했으며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개발 인력을 재편했다. 아울러 지난 인사개편에서 박영미 신입 상무가 최연소 여성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업계에서 화두가 됐다.

#### ◆마이데이터·헬스케어 등 확대

지난해 3월 KB손해보험은 자사 에

플리케이션에 마이데이터 기능을 탑재했다. 은행, 증권, 카드 등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본연의 기능과 함께 개인별 보험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증강현실(AR)자산조회 서비스가 주목된다. AR자산조회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특정 금융사의 간판 및 문서 등을 비추면 인식한 금융기관의 자산정보를 한 번에 제공한다.

보험금청구 간소화 기능도 담았다.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보험금 지급 간소화 역량이 소비자들의 주요 평가 대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지난달 신설한 고객·상품·채널(CPC)디지털부분 등을 통해 강화할 가능성도 등장한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생·손보업계 관계없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보험금 지급 간소화 기능 강화는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다”라고 귀띔했다.

자회사인 KB헬스케어를 통해 관련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아워홈’과 ‘솔티드’, ‘블루엔트’ 등과 손을 잡으며 헬스케어 진출에 몰두했다.

아워홈과는 플랫폼 개발 협업을 통해 자사 건강관리 플랫폼인 ‘오케어(O’Care)’를 선보였다.

KB손해보험은 오케어 내 콘텐츠 강화를 위해 ‘블루엔트’와 협업을 맺어 의학 콘텐츠를 제공 받고 있으며 ‘솔티드’와의 협업을 통해 바른 자세를 진단해주는 ‘자세밸런스 진단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빅데이터 사업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의료데이터를 판매했다. 한국웰케어산업협회는 KB손해보험의 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시보드 미니보험 출시를 예고했다. 데이터 상품화 경험을 통해 올해도 데이터 사업에 힘을 쓸 것으로 풀이된다.

#### ◆자녀 보험 개발 확대

지난해 KB손해보험의 ‘금쪽같은 자녀보험’이 러브콜을 받았다. 오은영 박사를 메인 모델로 내세워 이목을 끌었으며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통한 단독 판매와 지속적인 보장 강화를 통해 내실을 다졌다.

금쪽같은 자녀보험은 업계 최초로 소아기 자폐증 보장 내역을 담았다.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만성 틱 장애까지 혜택에 포함했다.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한 달간 자녀 보험을 강화해 후유장애 특약을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늘렸다.

금쪽같은 자녀보험은 출시 이후 ‘정신질환 치료비’와 신경성 식욕부진 및 폭식증에 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자녀 보험을 중심으로 상품 내용을 강화해 가입자를 늘리려는 전략이다. 올해도 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해 상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가족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은 보험업계에서 ‘효자상품’으로 통한다. 자녀와 부모 등 가족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상품은 해지율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수준 높은 회사가 된다면 고객은 의심하지 않고 ‘KB손해보험’이란 이유만으로도 우리를 선택할 것”이라며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예금금리 내리막길... 저축은행도 4%대로 ↓

업계, 한 달 새 6%대 상품 사라져  
충분한 자금 수수에 인화 기조 유지

주요 저축은행이 수신 금리를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쏠소리에 시중은행이 금리를 낮추자 간격을 맞추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평균 예금 금리는 3개월 만에 연 4%대로 떨어졌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정기예금(1년물)의 평균 금리는 연 4.93%로 하루 사이 0.0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0일 4.96%로 떨어진 이후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13년 만에 연 5%선을 웃돌았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연 6.5%의 예금 상품을 출시해 은퇴자 및 자산가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기준 금리 인상 기조에 시중은행이 수신 금리를 높이자 저축은행 또한 맞불을 놓은 것. 통상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은 시중은행보다 연 1~2%p 높게 책정한다.

그러나 한 달 사이 연 6%대 상품이 모습을 감쳤다. 이날 기준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은 대백·엠에스·유니온·한성저축은행의 정기예금(1년물)이다. 네 상품 모두 연 5.4%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어 씨케이



정기예금 금리가 3개월 만에 연 4%대로 떨어졌다. /뉴시스

(CK)·안국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이 연 5.32%로 뒤를 잇고 있다.

금융업계는 저축은행의 수신금리 인하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지난해 4분기 고금리 예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수신했기 때문이다. 통상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취급량 증가 등 자금이 필요할 때 수신 금리를 높인다.

부동산 시장 경색 또한 영향을 준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이 줄어서다. 아울러 지방에 위치한 저축은행의 경우 의무여신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업 대출을 늘리기도 어렵다. 대출 취급량이

줄어든다면 수신 금리 인상 필요성도 떨어진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지난해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조달했고, 기업 및 PF대출 취급도 줄고 있어 예금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균 금리는 연 4%대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연 5% 중반의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지금 가입해도 1억원을 맡기면 매년 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금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때는 1년물 상품보다는 2~3년물 상품이 유리하다. 1년물의 경우 가입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높지만 만기 이후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분산해서 보관할 계획이라면 서둘러야 한다. 한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20일 이내 또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입이 막혀있는 사이 업계 평균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수신 금리는 한 번 떨어질 때 1%p 이내에서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빠른 가입이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 캐뱅크, 아파트담보·전세대출 금리 인하

아파트담보대출금리 최대 0.64%p  
전세대출금리 최대 0.24%p 내리

캐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담보대출금리는 최대 0.64%포인트(p) 낮춘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금리는 연 4.69~6.07%로, 신규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4.7~6.07%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최대한도는 10억원, 생활

안정자금 최대한도는 2억원이다.

전세대출은 일반전세일 경우 최대 0.24%p, 청년전세일 경우 최대 0.11%p 인하한다. 일반전세대출 금리는 연 4.66~6.08%, 청년전세대출 금리는 연 4.61~5.05%가 적용된다.

캐뱅크 전세대출상품은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모두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차 보험사기 당했다면, 인상분 환급 가능

금감원,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  
지난해 2264명에 9.6억 돌려줘

#. 2020년 7월 보험사기범 A씨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이던 B씨의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낸 뒤, B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88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보험사는 B씨의 사기 피해 이후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40만원을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월 10월부터 2022년 9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 이번 환급금은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DB·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사기 환급제도가 실시된 이후부터 보험사는 피해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67억3000만원이 환급됐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기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를 뜻한다.

금감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 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뒤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카카오뱅크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

회선조회·신규개통 제한 가능

카카오뱅크가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직접 조회하고 필요 시 신규 개통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내 ‘인증·보안 - 금융사기예방’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계좌 개설 고객 또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중인 만 19세 이상의 고객이라면 인증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고객은 조회 시점에 본인 명의로 개통된 국내 모든 통신사(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 회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추가 개통을 차단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나유리기자